

머리 뎀 낙지 시식회 분통 터진 전남 어민

서울시 낙지데이 '우롱'...카드뮴 검출 낙지에 중국산 포함 물의

지난달 서울시의 '카드뮴 검출 낙지' 발표 당시 실현에 쓰인 낙지 중 일부가 중국산으로 확인되면서 전남지역 어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서울시가 20일 구내 식당에서 머리를 떼어낸 낙지요리를 제공하기로 한데 대해 '어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낙지의 원산지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씨 등 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서울시가 지난달 표본 조사한 국내산 낙지 3마리 중 1마리가 권씨가 공급한 중국산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발표로 그동안 '중국산 낙지 의혹' 등을 제기해왔던 신안과 무안 등 전남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카드뮴 낙지' 발표 이후 낙지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 산지에서는 세발낙지 20마리 한 접당 3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낙지 한 접당 4만5000원선에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지값이 3분의 2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또 낙지를 찾는 손님이 줄어 식당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선물용 소비도 급감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던 낙지가 서울시의 발표 이후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검찰의 발표 이후에도 '낙지는 내장만 빼면 문제가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원산지'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실제 섭취하는 모든 낙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서울시는 20일을 '낙지 데이(day)'로 정해 점심 때 머리를 떼어낸 낙지요리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어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낙지 머리를 떼어낸다는 것 자체가 낙지가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는 것을 되레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대규모 상경투쟁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서울시의 '중금속 낙지' 발표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장흥과 고흥 등 서남해 어민 70여

명은 조만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중금속 낙지머리 발표에 대한 전국 어업인 결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전국수산자원보호협의회 회원들도 오는 25일 서울시를 향의 방문키로 하는 등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안갯벌낙지 영여조합법인 양태성(44) 대표는 "서울시가 실편 때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머리를 떼고 먹으면 괜찮다'는 홍보를 하는 것은 어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발표로 낙지 생산어민과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서울의 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 9곳에서 국내산 3건, 중국산 6건을 실험한 결과 낙지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원범기자 wncho@



지구온난화로 예년보다 1주일가량 늦게 시작된 단풍이 남하하면서 19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주변의 나무들도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정주 기반 조성 차질

공동주택용지 파격조건에도 분양 全無...공동화 우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태에서 깨어날 줄 모르면서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가 잇따라 미분양돼 '공동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는 19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회담 건설업체의 추천을 받은 결과, 한 군데도 없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지 2필지(15만4709㎡)에 대한 건설업체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 분양 공고 대신, 추천 방식으로 희망 업체를 모집했는데 택지를 사들이겠다는 민간 건설사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지는 모두 33만1457㎡. 이번 흥행 참패로 예초 2008년부터 분양기로 했던 공동주택지 공급 일정은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또다른 시행사인 LH 광주전남분부가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지 5필지(24만9000㎡·1109억)의 경우 세차례의 분양 공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팔리지 않았다.

토지공사는 대금 납부 조건을 크게 완화(3년 무이자 분할→5년 무이자 분할 납부)했지만 건설업체로부터 절저히 외면당했다. LH는 그나마 '토지 리턴제'를 적용,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할당이 가능한 '파격'조건을 내걸었지만 택지를 매입하려는 건설사를 찾지 못했다.

전남개발공사도 비슷하다. 전남개발공사는 혁신도시 내 골프장(72만1천260㎡) 부지 매각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골프장과 공동주택지를 연계, 골프장 용지를 사들이는 건설사에 공동주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와 LH의 혁신도시내 공동주택 분양이 성공을 거

두지 못한 만큼 이 조건에도 팔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예초 계획했던 공동주택지 공급이 이뤄지면서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의 공급 일정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사들은 이전기관 중 가장 큰 한전이 예초 계획(2010년 3분기 착공)이 아닌, 내년으로 착공시기를 미

루면서 도시 조성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는데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 기관조차도 부지 매입을 늦춰 건설사들이 택지 구입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최대 이전 기관인 한국전력이 건물 공사에 들어가는 내년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혁신도시 조성이 활성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과기원 기술이전 사업 '속빈 강정'

37건 불구 28억 적자

지역의 대표 과학교육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 사업이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

상기(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국내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수입현황에 따르면 광주과기원의 특허보유 건수는 1218건이며, 기술이전 건수는 37건이다.

기술이전 건수만을 놓고 보면 서의원이 분석한 국내 대학 156곳 가운데 26위에 오른 것으로, 교수진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실적이다.

그러나 순위에 비해 광주과기원의 최근 3년간(2006~2008) 기술이전 수입료는 9억7000여만원에 불과하다. 특허개발에 19억6000여만원의 비용이 든 것을 감안하면 9억9000여만원이 적자인 셈이다.

여기에 14명의 기술이전 사업화 부서직원 인건비 등을 더하면 적자폭은 크게 늘어 28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순위도 전국 조사 대학 156곳 중

155위로 꼴찌나 마찬가지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개발 등을 통해 특허를 많이 보유했지만 기업체 기술이전 등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8년 기준 전국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4만4169건이며 기술이전 실적은 2735건으로 집계됐다. 서의원은 "대학이 많은 돈을 들여 보유한 우수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 등에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실업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학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 등을 위해 지난 1993년 설립됐으며 올해 학사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됐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보문고 신입생모집

10월20일~25일 원서접수

-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 전국 최상위 틀든재단!
- 전교생 수능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 보따-폭넓은 장학금 제도!
- 2009 교과부 선정 영어리더 학교!

보문고등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입학문의 (062) 940-8800

촉촉함이 깊어져요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언제부터가 매일 바르던 보습제품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을 만나보세요. 지구상의 그 어떤 물보다 생명력 넘치는 깊은 바다의 마린 에너지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 피부 깊숙이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바를수록 깊어지는 촉촉함을 느껴보세요.

- 마린 플라센타* 콘플렉스를 함유하여 피부에 닿는 순간 미세열이 풍부한 해양산소수와 심해의 보습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수분막을 형성합니다.
- 피부 구성성분과 유사한 탄수화물 복합체, 자질성분 등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입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뷰티이력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 구입처 문의 : [동주점] 동주점 062-225-5056 / [서부점] 서부점 062-222-5005 / 상무점 062-228-8048 / 중영점 062-573-8802 / 광주송정점 062-241-6666 [전남점] 목포점 061-286-2007 / 순천점 062-222-0155 / 여수점 061-832-0614 [전북점] 군산점 063-468-3173 / 전주점 063-286-0636 / 호남제일점 063-279-2010